

사슴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책 소고



- 밤 상 극 -

필자가 양육과 인연을 맺은지 어언 6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 양육은 소수 특수 사치 축종에서 농가소득 축종으로 전환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7천개소의 사슴 사육장이 있고 약 12만여두의 사슴에서 약 2만키로의 국산 녹용이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양육은 축산업의 한분야를 차지하면서 산업으로의 정책지원과 체계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나 관계당국은 냉담하기만 한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양육업계는 금년들어 사슴고기 수입, 생사슴 수입 자유화(92년) 예시발표, 동물학대와 관련된 사슴피 세균감염 오보과 동 그리고 사슴피 수입가공 허용동의 대사건의 연속으로 터져나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40년간 쌓여있던 문제점을 불과 수개월 사이에 쏟아놓은 것으로 양육사상 최대위기를 안겨주었는데, 이 모든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정부당국에서 저지른 사건들이라 어이가 없다. 그리고 믿을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양육인이고 사슴일 것이다. 이들 사건중

첫째 사슴 세균 파동은 진상규명과 진실해명으로 국내사슴 감염설 사실 무근임을 일간지와 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해명성명을 함으로서 절차상의 마무리는 되었으나 고객의 의구심을 말끔히 씻어주기에는 미흡하며 따라서 상당기간 영향이 미칠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사슴 수입개방 문제는 불과 4개월 이후면 사슴수입이 자유화된다. 3월 하순 수입개방 발표이후 일부 양육인과 대기업체등에서 사슴수입과 관련된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을 위해 구매대상국 방문이 빈번한 것

이 사실이나 적극추진은 않고 있다.

사슴을 수입하려면 구매, 판매처 및 소요재정확보, 품종검정 및 방역대책등 수입관련준비사항과 정확한 정보와 기동력이 뒷받침되야 하기 때문이다.

사슴 수입을 목전에 둔 국내 양육업계에서 아무리 외면해도 사슴수입은 실행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책이 바로 사슴수입을 막는길이요 이것이 곧 양육인의 이해와 직결되며 나아가 한국양육 발전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1. 수입 창구의 단일화

국내 양육업계에서 사슴수입을 반대한 주된 이유는 국내 사슴과 외국사슴과의 가격차가 높아서 외국사슴이 수입될 경우 국내 사슴 가격하락으로 어렵게 다져온 국내 양육기반이 위협받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3.29 사슴수입 개방예시 발표는 국제화시대에 대처하는 농산물 전면 수입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정책적인 결정앞에 양육인의 힘은 무력하기만 했다.

본 발표후 국내 양육업계는 사슴값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우려가 고조되면서 수입전에 피해를 주리려는 심리에서 기르는 사슴의 방매, 투매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나, 거래는 전혀 안되고 스스로 사슴값만 떨어뜨리는등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 개방 발표이후의 국내 양육실상이다.

약은 폐로 현실을 도피하려느니 보다 참고 견디며 역경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더욱 필요한때라고 본다.

사슴 수입 자유화에 편승 무분별한 수입경쟁은 수입원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물량 확보가 어려워 저질 사슴 수입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슴 수입을 잘하면

개인이나 국가에 이익이될 것이고 지나친 경쟁은 개인과 국가에 위해를 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양록업계에서 단일창구로 사슴 수입개방 대응책이 마련되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국내양록 기반도 보호되고 우량종류 개량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책 수립은 오로지 7천 양록인과 관련 단체가 하나의 목소리와 하나의 행동으로 될때만이 가능하다. 국내 양록인이 하나로 뭉쳐지면 누가 감히 영리적 사슴수입을 획책할 것이며 재벌 또한 발부칠 곳이 있겠는가?

본인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아직도 현실을 직시 못하고 꿈을 꾸고 있는 일부 양록인의 잠고대 소리이다.

7천명의 양록인이 단결하면 모든 현안문제 해결의 원동력이 되어 불필요한 사슴 수입억제를 비롯한 양록발전에 수반되는 제반 연구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 협회와 조합, 유통연합, 월간사슴등 관련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슴수입 개방 대응책을 마련한 다음 양록인 대회를 통해 대응책을 확정해서 종록 수입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사슴 수입은 국내 사슴 개량에 필요한 국소량의 종록과 신규 분양 회망자의 종록 공급에 국한하되 전문가가 엄선한 우량종록의 공동구매 제도를 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수입제도가 정착하면 영리 목적의 개인 수입을 막을 수 있고 재벌들의 사슴 수입야망은 포기하게 될 것이다.

2. 수입 대상국의 동향과 시장 정보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는 사슴은 1948~1975년 사이 외국에서 수입해온 것이며 그 당시는 양록 지식 부족으로 우량종 감별이 철저하지 못해 그 영향이 지금까지 마치고 있다.

(1) 우리나라 사육 사슴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꽃사슴은 일본과 대만등지에서 수입한 외소한 품종이라서 중국산 매화록(꽃사슴)에 비해 녹용 생산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개량이 시급하나 중국 매화록 수입이 불가

능한 실정이다.

(2) 교잡종용으로 인기있는 레드디어의 국내 두수는 약 6천여두이며 국내 가격과 수입 대상국과의 가격차가 심하다. 따라서 수입개방 발표직후 가격차가 큰폭으로 하락한 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뉴질랜드의 레드디어 종록(성록) 가격은 40~90만원을 호가한다.

이 정도의 사슴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경우 경비와 항공료, 관세, 검역등을 포함한 분양 예정 가격은 120~250만원으로 예상된다.

(3) 녹용 생산량이 가장 많고 체구가 큰 엘크 사슴의 국내 보유두수는 약 9천 여두이며 외국(캐나다)과의 가격차는 약 2.5배 정도이나 종록은 별차이가 없다.

5월 9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 무역국장(아시아 담당) 엠베리씨와 캐나다 양록협회 임원이 우리 양록 견학차 다녀갔고, 또 본회 안정식 회장님이 7월말 캐나다를 방문 사슴 수입 관련 현지 사정과 정보를 수집한바 있으며 8월 26일 앨버타 주립대 교수 HANSEN. U. LEE씨와 엠베리씨가 내한 본회 방문요담에서 입수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앨버타 주 사슴수는 엘크 약 4,000두(캐나다에서 최다 엘크 보유) 농가수는 110호이며 녹용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우량종의 시세는 성록상 13,500\$ (810만원) 성록우 6,800\$ (408만원) 자록상 10,500\$ (630만원) 자록우 4,200\$ (252만원)으로 매우 높은편이며 수출은 억제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캐나다 지역의 엘크 사육두수는 순중 8천두이내 잠중 1만 여두로 추정하며 미국이 수천두등 약 3만두 이내의 엘크가 있다고 추정한다.

미주지역의 엘크 성록을 수입하려면 항공료 경비등을 포함하여 두당 약 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더욱이 캐나다는 최근 사슴 결핵 감염조사, 품종 분류와 혈통 구별등을 조사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 모두가 끝난 다음 사슴 수출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

협회사무국장